

요약

최근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장기부채 관리와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채권 투자 비중을 높이는 추세를 보임. 예를 들어, 스위스 취리히(Zurich)는 글로벌 그린채권 펀드 출시를 통해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와 이탈리아 제네랄리(Generali)는 보완자본 채권 발행을 통해 기후 대응 및 지속가능금융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장기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수익 자산인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¹⁾
 -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국채(Government Bonds) 중심의 자산구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프랑스, 대만,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회사채(Corporate Bonds)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금리 인상으로 채권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콜롬비아, 페루 등 일부 보험회사들은 채권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했으며, 특히 불가리아의 생명보험회사들은 국내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Inflation-Indexed Government Bonds) 투자를 강화함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에 따르면, 유럽경제지역(EEA) 보험회사들은 유럽연합의 탄소중립(Net-Zero)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산구성 면에서는 국채(22.4%)와 회사채(21.4%)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²⁾
 - 유럽 보험회사들이 보유한 회사채와 주식 중 약 10.7%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기준(EU Taxonomy)에 완전히 부합하며, 약 48.6%는 일부 기준을 충족해 지속가능 투자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평가됨
- 스위스 취리히(Zurich) 보험그룹은 아문디 자산운용사와 협력하여 2025년 7월, 생명보험 가입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그린채권 펀드(Zurich Global Green Bond Fund)'를 출시함³⁾
 - 그린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으로, 해당 펀드는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우선 출시되었으며, 이후 다른 국가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 투자 대상은 정부, 국제기구, 기업이 발행한 다양한 그린채권으로 구성되며,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개선, 오염 저감, 수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친환경 건축 등 폭넓은 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해당 펀드는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으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tCO_{2e})을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 환경적 효과를

1) OECD(2024. 12.), "Global Insurance Market Trends 2024"

2) EIOPA(2024. 11.), "Insurers' Green Investments In 2024"

3) Zurich(2025. 7.), "Zurich and Amundi launch the Zurich Global Green Bond Fund"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전체 자산의 최소 90% 이상을 그린채권에 투자함

- 필요 시 사회적 채권(Social Bond)과 지속가능성 채권(Sustainability Bond)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글로벌 그린채권 성과의 표준 지수인 블룸버그 MSCI 글로벌 그린채권 지수(Bloomberg MSCI Global Green Bond Index)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액티브 운용 전략을 활용함

○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보험그룹은 2024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환 계획(Transition Plan)을 발표했고, 2025년 3월에는 2045년 만기 3억 유로 규모의 보완자본(Tier 2)⁴⁾ 채권을 발행함⁵⁾

- 전환계획은 보험인수, 자산운용, 경영활동의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보험인수는 고탄소 산업에 대한 보장 축소와 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자산운용은 고탄소 배출 업종 비중을 축소하고 배출 강도를 고려한 투자 전략 반영, 경영활동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차량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됨⁶⁾
- 2025년 6월 말 기준, 비엔나 보험그룹의 위험부담 투자 규모는 총 373억 유로이며, 그중 채권(Bonds, 74%) 비중이 압도적이며, 부동산(Property, 9.6%) 현금·예치금(Cash and Deposits, 9.2%)이 뒤를 이음
- 발행 조건은 초기 10년간 연 4.62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2035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조기상환 옵션도 부여되어 자본구조 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함
- 이번 발행은 발행액의 3배를 초과하는 10억 유로 이상의 수요를 기록했고, 동시에 비엔나 보험그룹은 2015년과 2017년에 발행된 후순위채 총 1억 2,600만 유로를 만기 이전에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했으며, 조달된 자금은 기후 대응 및 사회적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임

○ 이탈리아 보험회사 제네랄리(Generali)는 ‘그린채권(Green, Social, Sustainability, 이하 ‘GSS’) 프레임워크’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5년 1월에는 2035년 만기 5억 유로 규모의 보완자본(Tier 2) 채권을 8차로 발행함⁷⁾

- GSS 프레임워크는 총 9개 카테고리(친환경 건축,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교통, 기후변화 적응, 생물 자원·토지 관리,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적정가격 주택 공급, 고용 창출·역량 강화 지원)에 자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기후 리스크 대응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차별화된 전략임⁸⁾
- 제네랄리는 2019년 이후 총 8차례 그린채권을 발행했으며, 특히 7번째 발행에서는 7억 5천만 유로를 조달하여 전액을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내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연간 약 2,193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를 달성함⁹⁾
- 이번 8차 발행에서는 21억 유로가 넘는 투자 수요가 몰려 발행액의 4배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조달된 자금은 제네랄리의 GSS 프레임워크에 따라 기후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임

4) 보완자본(Tier 2)은 바젤 은행 규제와 유럽 보험사 규제체계인 Solvency II에서 공통적으로 정의된 자기자본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금융기관이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임

5) Vienna Insurance Group(2025. 3.), "Vienna Insurance Group successfully places Tier 2 sustainability bond"

6) Vienna Insurance Group(2025. 9.), "Investor Presentation"

7) Generali(2025. 1.), "Generali successfully placed its eighth green bond"

8) Generali(2023. 12.), "Green. Social & Sustainability Bond Framework 2023"

9) Generali(2025. 8.), "Half-Yearly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 2025"